



## 메이컵인 아시아 서울의 파트너, 입생로랑 뷰티!



메이컵인 뉴욕의 메이블린과 메이컵인 로스엔젤러스의 랑콤 이후, 로레알 그룹과 함께한 8개월의 파트너십이 계속된다. 다음주 4월 5일과 6일 양일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릴 메이컵인 아시아는 입생로랑 팀과 함께한다. 오래 전부터 특히 아시아에서 성공해온 브랜드이니 만큼 그 존재감은 특별하다. 전용 라운지에서 만날 입생로랑은 다른 브랜드들과는 또 다른 전설로의 시간여행이다.

입생 로랑 뷰티의 독창성을 상징하는 언어를 꼽으라면 무엇일까? 아마도, '타협은 없다.', '나 자신의 법칙'. 바로 지금'...일 것이다. 가장 파괴적인 파리 꾸뛰르 메이커로부터 영감을 받은 모토.

1964년, << Y >>는 입생로랑이 향수 세계로 진입한다는 선전포고를 했다. YSL 뷰티는 1971년 최초의 남성 향수인 <뿌르 옴므>를 런칭한다. 이 향수를 위해 나체로 포즈를 취한 입생로랑이 창조한 이미지는 이로부터 50여년 간 진정한 사회학적 향기로 기록되었다. 뒤 이어 1977년 <오피움>의 런칭은 유혹적이고도 자유로운 여성을 상징한다.

오늘날 이 브랜드의 젊음과 현대성은 새로운 성공들로 입증되고 있다. 전통적인 사이프러스 향을 파괴적으로 재해석한 <블랙오피움>(2014)과 <몽 파리>(2016), 남성성의 본질인 <롬므>와 <라뉘 드 롬므>는 관습에서 벗어나라는 권유와 유혹을 표현한다.



YSL 뷰티 메이컵에 있어, 이 기상천외한 제스처는 어떤 태도에 연관된 강렬한 상징이다. 관습을 집어던진 강렬하고, 순수하며, 빛나고, 관능적인 아름다움은 <루즈 뷔르 구뮈르>와 <마스카라 볼룸 에페 포실>과 함께 강렬한 버전으로 베일을 벗었다. 최초의 입술 새도우인 <피시아 n°19> 부터 <베르니아 레브르>까지, <뷔르 구뮈르 오 루주 볼륨떼>부터 <틴트-인-밤>까지 《립스틱의 대표제품들》이다. 입생로랑은 립스틱에 삶에 임하는 태도의 흔적을 새겨 넣었다. 격조와 반짝임 그리고 혁신의 진정한 표명인 입생로랑의 립스틱들은 관습을 뛰어넘은 여성의 이미지인 것이다.

### 아이콘 《베르니아 레브르》!

립스틱은 2012 년에 <베르니아 레브르>와 함께 유혹이 되었고, 뷰티의 아이콘이 태어났다. 이 새로운 카테고리 립스틱을 창조하면서, YSL 뷰티는 립글로스의 극단적인 반짝임과 립스틱의 강렬함에 .잉크의 옷을 결합시켰다. 혁명이 시작된 것이다.

해마다 세상의 이목을 끌면서, 2016 년의 신제품 <베르니아 레브르 비닐 크림>은 이 라인의 성공을 확인했다. 혁신에 강력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YSL 뷰티는 올해, 특히 아시아에서 볼륨떼 라인을 성공시킨 《BI(back injection)》 기술을 다시 사용하여 <볼륨떼 틴트-인-밤>을 출시했다. 이 라인은 순수하고 빛나는 컬러와 케어를 위한 영향성분이 결합하고 립스틱 가운데에는 입술형태의 장난스러운 모티브를 새겼다.

하이라이터 펜 <뚜슈 에끌라>는 올해로 25 해를 맞는다. 이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컬트 제품이다. 아이콘같은 그 마술의 빛은 또한 새로운 이노베이션의 물결과 함께 최적화된 파운데이션과 혼합된다. 탄생일을 기념하며 <뚜슈 에끌라>는 2017 년 3 월 부터 큐션 컴팩트 형으로 재 런칭될 것이다.

2017 년 뷰티분야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톰 페세는 생로랑 메이컵 패션쇼를 창조하여 패션과 뷰티 사이의 시너지효과로 대 변혁을 일으켰다. 미학적 감성과 트렌드를 읽는 능력으로 유명한 톰 페세는 항상 더욱 《젊고, 불안하며, 렉서리한》. 록을 창조하기 위해 전문성과 비전을 브랜드에 쏟아 붓고 있다.



### 메이컵의 이전과 이후!

메이컵 아티스트들로부터 직접 영감을 받은 <탐시크릿>은 메이컵 전과 후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적이고도 정교한 케어에 웰빙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의 상징적인 라인이다.

YSL 뷰티는 또한 <오르 루즈> 라인으로 예외적인 케어를 제공한다 : 값비싼 사프란과 당쇄생물학적 전문성과의 결합이라니! 이 감각적인 제품들은 피부의 젊음을 위해 고도의 기술로 최선을 다한다

스타즈 린즈, 에디 캠벨, 울스톤 같은 냉정하면서도 뷰티 브랜드의 화신들이다. 또한 메이커의 국제적 발현에



크리스타 코버, 그리고 남성으로는 비니 불안하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입생로랑 미국의 조이 크래비트 같은 뮤즈들이 참여하고 있다.